

교회라는 이름의 금고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07/17

오늘 이탈리아에 있는 내 세 아이 중 하나인 Francesco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가 말한다. 아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빠는 진짜로 빈털터리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답한다. 좋은 아침이다, 잘 지내니. 나는 그에게 이것이 아마 전화를 여는 가장 좋은 방식일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33년 동안 내가 다른 인간에게 말 거는 법을 가르치는 데 분명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고.

나는 아들이 어머니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글을 막 읽은 참이었다. X 인자는 어머니에게서 온다. 그리고 지능에 관해서는 따질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은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 전달에서 되돌릴 수 없다. 자연의 유전인 것은 바꿀 수 없다.

딸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으므로 서로 전화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 애는 바로 그날 나에게 말했다. 우리 대화가 자기를 흔들어 놓는다고, 그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충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고.

나는 그 애에게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애는 내 딸이었다. 설명은 필요 없다. 어떤 사실들은 다른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그러다 나는 THE PHONE CALL OF JESUS라는 책을 썼던 것이 떠올랐다. Amazon의 어느 대화 스레드 안에서 그 책을 발견한 뒤 출간을 거두어들였다. 거기서 누군가가 AI가 만든 책이 도대체 얼마여야 하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자기 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략 이천 년 전에 쓰인 책. 그것은 수십억 부가 팔렸고 그의 인세는 영원해졌으며,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의 금고 안에 보관되었다.

누군가는 그것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다. AMAZURCH.

가장 웃긴 대목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안에는 누구에게도 소개한 적 없는 우리의 한 조각이 있다. 우리를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서 우리를 보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도착한다.

대체 저자는 누구인가.

Ferdinando